



벤처+벤처=21세기 新벤처

민관 4개 기관, 희망동전쌓기 캠페인 공동협약 체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신개념 캠페인에 민관이 함께 나섰다. 게임 및 모바일솔루션 개발회사 이쓰리넷(주)(대표 성영숙, www.e3net.co.kr)은 기부문화 확산 및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정정섭)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과 공동으로 '희망

동전쌓기'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기로 3월 6일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협약은 기존의 정적이고 지루했던·공익캠페인에 세계 최초로 'FUN'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범국민적인 후원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전국민 10원 이상 기부를 목표로 가게에 잠들어 있는 동전들을 깨우고 저축 장려 및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인 '희망동전쌓기 로드쇼'는 참여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동전을 쌓고 그 동전을 가져가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기부나 후원이 일상적이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음을 체험하고 나아가 기부나 후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4개 기관은 연중 캠페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별 담당자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며 기관별로 사업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진행한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국내 사업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해외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단체,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쓰리넷(주)은 캠페인의 전체적인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쓰리넷(주) 성영숙 대표는 "영국 신경재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지수(HPI)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가 1위를 차지하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남을 돕는 문화는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여 결국 스스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기부와 후원의 뜨거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캠페인은 어느 기업이든 스폰서로 참여 가능하며, 기업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지오인터랙티브, 휠체어 육상선수 후원



모바일 콘텐츠 전문업체 지오인터랙티브(대표 김병기, <http://www.clubzio.com>)는 사회공헌과 함께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지의 하나로 올림픽과 세계 신기록을 세운 휠체어 육상선수 홍석만에게 선수용 휠체어를 기증한다고 밝혔다.

홍선수는 지난 2004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 육상 2관왕을 차지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며 김병기 사장과 인연이 된 'KBS 희망원정대 2기' 대원으로 킬리만자로 등반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김병기 사장은 제2기 희망원정대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그 스스로 멘토(후견인)가 돼 장애인인 손을 맞잡고 정상인도 오르기 힘들다는 그 산에 올랐다.

김병기 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부를 통해 사회환원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휠체어를 기증하였다. 또한 현재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업체로서의 꿈을 향해 달리는 지오인터랙티브처럼 홍석만 선수도 꿈을 향해 씩씩 달리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희망 휠체어'라 명명하였다"고 전했다.

네오위즈, EA와 지분 투자 계약 및 온라인게임에 대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세계적인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선두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일렉트로닉 아츠는 국내 메이저 게임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네오위즈와 지분투자계약 체결 및 온라인게임 공동개발과 공동퍼블리싱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양사는 2006년에 'EA Sports™ FIFA Online'의 공동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440만 명의 게임유저를 모으며 당해년도 가장 인기있는 게임으로 평가받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A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주식의 약 19% 가량을

확보하게 되며 15%의 보통주와 의결권 주식의 4%에 해당하는 전환우선주를 받아 일정 시점 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EA의 투자금액은 약 1억 5백만 달러(약 1,000억 원)가 된다.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EA는 1대 주주인 나성균 사장에 이어 네오위즈의 2대 주주가 된다.

한편, EA와 네오위즈는 아시아 시장에서 퍼블리싱하기 위한 온라인게임 4종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공동 개발하는 4종의 게임 중 적어도 2개를 한국과 일본에 퍼블리싱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네오위즈의 나성균 대표는 "EA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매우 큰 성공을 이뤄냈다"며 "EA는 풍부한 게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네오위즈와 EA는 협력을 통해 이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게임들로 아시아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다"고 말했다.

EA의 CEO인 래리 프롭스트 회장은 "우리는 네오위즈가 피파온라인의 성공을 통해 보여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네오위즈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EA의 여러 게임들의 성공을 보장시켜주는 제일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 美 현지법인에 100억 원 투자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SW)업체인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가 올해 미국법인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 미국 시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SW업체로 성장, 오는 2010년까지 세계 4위의 SAP를 따라잡는다는 전략이다.

티맥스소프트는 18일 미국법인을 뉴저지에서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SW업체로 도약을 위해 SW 본토인 미국 시장 마케팅 비용 등으로 10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SW 전문업체가 이처럼 대규모의 해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핸디소프트 이후 처음이다.

티맥스소프트는 미국 IT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업조직은 물론이고 마케팅과 기술부문을 신설한 데 이어 현지인을 법인장으로 채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티맥스는 이와 관련, "올해 초 박대연 오너겸 최고기술경영자(CTO)가 미국 현지 실사를 마친 후 성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는 메인프레임을 오픈환경으로 전환해주는 리호스팅솔루션인 '오픈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HP 등 글로벌업체와 협력을 추진, 미국 시장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맥스는 이를 위해 이강만 상무를 해외총괄사업 본부장으로 선임했으며 관련 인력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 상무는 "미국은 티맥스소프트가 글로벌 SW업체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넘어야 할 시장"이라며 "올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유럽 등에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오는 2010년까지 매출 3조 원의 세계 5대 SW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번에 미국법인을 확대 개편하면서 SW업계의 인수합병(M&A)과 급격한 시장변화 등으로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하면 오는 2010년까지 SAP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해 세계 최대 리호스팅 프로젝트(7500MIPS)를 추진한 삼성생명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로부터 "티맥스소프트가 IBM의 최대의 적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기술개발로 진보하는 글로벌 벤처

컴스퀘어, 오토에버에 X인터넷 솔루션 공급



X인터넷 대표기업 컴스퀘어(대표 윤희권)는 현대자동차 SI사인 오토에버시스템에 X인터넷 솔루션 '트러스트폼 시스템'을 공급키로 했다.

오토에버시스템은 현대자동차 그룹 IT 서비스 전문업체로 현대자동차의 SI(System Integrator)를 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컴스퀘어는 오토에버시스템에 트러스트폼을 공급함으로써 계열사인 모비스, BNG스틸, 현대파워텔,

위아 등 현대자동차 그룹 대부분에 X인터넷을 공급하는 업체가 됐다.

특히 컴스퀘어의 '트러스트폼 시스템'은 지난 해 10월 오토에버시스템의 단일 시스템(GCSC)에 적용된 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투자관리시스템, 매출예측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 3곳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난 2월 수주한 예금보험공사 역시 2005년 재무 시스템에 '트러스트폼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비롯해 e-HR시스템, 부실채권심사 시스템 등에 '트러스트폼 시스템'을 도입해 컴스퀘어를 표준인 업체로 선정했다.

'트러스트폼 시스템'은 서버, 네트워크, PC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토록 해 효율성을 강화시켰고 코드의 간결화, 톨 중심의 개발 환경으로 생산성을 높였다.

컴스퀘어 기술지원 영업담당 배준순 이사는 "대규모 공공기관 프로젝트와 금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해 고객 입맛에 맞는 솔루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개발기술 공개



한글과컴퓨터(대표 백종진)가 21일 제2회 공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컴은 지난 해부터 소규모 벤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개발자들에게 기술 노하우를 공개하기 위해 공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 한컴은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문서보안'의 역사와 기술을 소개하고 전자문서 관리, HDK(Hangul Development Library Kit)를 활용한 데이터 검색 및 활용 기술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 1회 때와 달리 '한/글' 중심의 기술 공개에서 벗어나 '넥셀', '슬라이드' 등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술을 공개했고 단순한 기술 공개를 벗어나 벤처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별도 부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컴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한컴과 벤처, 상호 간의 기술 응용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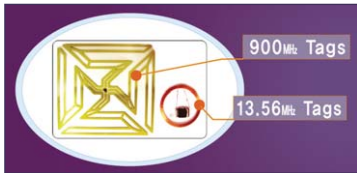
'문서보안' 세션에서는 암호화 기능과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구현된 한컴의 '한/글' 및 '넥셀', '슬라이드'의 보안기능을 사례 별로 소개하고 보안기술 구현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HDK를 활용한 '데이터 검색 및 관리' 세션에서는 한컴오피스 제품군은 물론이고 MS 오피스의 엑셀과 파워포인트 데이터 검색 및 추출기능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기술을 소개했고 한편 '전자문서 작성과 관리' 세션에서는 '한/글'을 기반으로 작성된 다양한 전자문서의 활용부터 이동, 관리 기능을 구현한 '한/글' 컨트롤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레인콤, 아이리버 클릭스 플래시 공모전 개최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업체 레인콤(대표 양덕준, 김혁균)은 '아이리버 클릭스 플래시 공모전'을 오는 4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레인콤의 MP4플레이어 클릭스에서 구동되는 다양한 플래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래시 콘텐츠 부분과 유저 스스로가 다양한 테마스킨을 디자인하는 플래시 테마스킨 부분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아이리버 홈페이지(www.iriver.co.kr)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총 1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5월 7일이다. 레인콤 관계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플래시 콘텐츠는 향후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가능 RFID카드 국내 첫 특허획득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인 (주)케이비씨테크 (대표 김원기 www.

kbccard.co.kr)는 2001년 창업이후 꾸준한 카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독자적인 기술연구 결과 각각의 다른 주파수를 활용한 ISO 규격 품질의 'Dual Frequency Card'를 개발 후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RFID카드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특허등록된 Dual Frequency Card는 각각 다른 주파수의 Tag가 근접거리에 있으면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로 하여 13.56MHz RFID 태그와 900MHz RFID 태그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태그의 인식거리 및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발된 제품이다. 13.56MHz RFID 태그에는 교통기능이 삽입되어 카드 사용자에게 선불 교통시스템의 사용과 출입통제시스템에서의 카드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900MHz RFID Tag에는 원거리 ID인식을 이용한 주차관리시스템 외에 900MHz RFID태그 시스템 응용분야에 사용된다. 더 나아가 금융IC를 삽입하여 카드 사용자에게 은행결제 기능을 부여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향후 금융권 및 신용카드사 뿐만 아니라 솔루션업체와의 연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비씨테크는 Dual Frequency Card의 특징을 이용하여 RFID관련 시스템은 물론, 카드의 다기능성을 이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 U캠퍼스, 출입관리시스템, 물류관련시스템 등 다양한 RFID솔루션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카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카드기술을 개발하여 RFID 관련 카드 및 태그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향후 개발제품으로 해외수출의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주)정보보호기술 ISMS 인증 획득



위험관리전문기업 (주)정보보호기술(http://www.infosec.co.kr, 대표 민병태)은 3월 7일 정보보호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http://www.kisa.or.kr, 원장 이홍섭)으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서비스(SCS : Information Security Check Service)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

(주)정보보호기술은 지난 해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의 심사를 거쳐 ISMS 인증을 획득했고, 위험관리전문기업으로서 위험관리시스템(TESS TMS)분야 4년 연속 1위를 이어나고 있다.

작년 12월 'TESS TMS v4.5'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 획득에 이은 이번 ISMS인증의 획득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통신사업자(ISP)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중소기업 및 지방 시군구의 산하기관까지 그 판매 영역을 넓혀 기존 시장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서수길 대표이사 선임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 / 이하 위메이드)는 서수길(40)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신임 서수길 대표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와튼 스쿨에서 MBA 과정을 밟고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쳐 SK C&C 기획본부장 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박관호 대표와 신임 서수길 대표가 각자의 전문 분야인 게임 개발과 경영의 수장을 맡게 되며, 각 대표이사는 분야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그 동안 축적된 개발력을 바탕으로 향후 시스템 경영을 위한 내부 경쟁력 체계 구축과 시장과 이용자 기반의 투자와 글로벌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